



오늘의 날씨와 생활

6월 23일 수요일 음 5월 14일 (6월)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 들어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곳에 따라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the day, including temperature and cloud cover percentages.

Table with sunrise and sunset times, moon phase, and moonrise/moonset times.

식중독지수 경고, 자외선지수 매우 높음

Table with air quality index (PM10, PM2.5) and pollen count.

주간예보 <문의: 국립백민이 131>
내일 구름 많음 20/25°C
모레 구름 많음 20/26°C

월드뉴스

열쌍둥이 출산 주장 여성 정신병원 입원

의료진 "임신·수술 없었다"



남아공 여성 고시아메 타마라 시틀레.

이달 초 열쌍둥이를 낳았다고 주장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30대 여성이 정신병원에 입원했으며, 의사들 검사 결과 임신을 했거나 출산을 위해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1일(이하 현지시간) 뉴욕포스트와 현지 매체 프리토리아 뉴스, EWN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수도 프리토리아의 한 병원에서 열쌍둥이를 출산했다고 주장한 고시아메 타마라 시틀레(37)가 지난주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요하네스버그 인근 템비사 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했다.

이에 대해 그의 변호사는 "시틀레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병원에 갇혀 있다"며 "변호사인 나도 입회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EWN과 인터뷰에서 "의료 검사를 진행한 결과 시틀레는 임신을 하지 않았으며, 최근의 제왕절개 수술을 증명할 신체의 흔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EWN은 시틀레가 정신건강법에 따라 구금돼 정신감정

앞서 프리토리아 뉴스는 시틀레가 지난 7일 밤 수도 프리토리아의 한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아들 7명과 딸 3명을 출산했다고 보도해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시틀레의 남편이 지난 15일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실종 신고를 냈으며, 아기들의 얼굴을 본 적도 없다고 밝혀 의혹이 불거졌다. 연합뉴스

건강&생활



이 소 영 미국 메릴랜드대 정신과 교수·정신과 전문의

코로나19가 남긴 것

이는 것도 같다.

한국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슬슬 속도가 붙는 모양이다. 미국은 이 바이러스로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비극이 아직도 진행중이기는 하지만, 백신만큼은 일찍 공급이 이루어졌다. 필자가 사는 지역은 18세 이상 인구의 70% 이상이 1회 접종을, 60% 이상이 2회 접종을 완료했다.

오늘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후유증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한다. 코로나19의 전례 없는 무서운 전파력과 치명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중환자실 의사들 말을 들어보면 코로나19는 일반적인 호흡기 바이러스들과 다른 양상들을 보인다. 그중 하나가 호흡기계만이 아닌 다른 장기 계통을 침범하는 사례가 잦다는 점이다.

코로나19 환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지 1년이 넘어가면서 코로나19 감염 시 급성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연구는 물론이고, 회복 과정과 회복 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데 대한 대규모 연구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는 논문들이 하나 같이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후유증 중 하나로 신경정신과적 후유증을 꼽고 있다는 것이다. 감염 6개월 후 세 명 중 한 명꼴로 신경정신과 질환을 진단받는다 하니 코로나19를 '호흡기' 바이러스로 보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가장 흔한 것은 수면 장애와 다양한 불안 장애다. 그다음으로 우울증 등의 기분 장애와 심하면 치매까지 생긴다니 보통 일은 아니다.

코로나19의 후유증으로 생긴 신경정신과 질환이 원래부터 존재하던 신경정신과 질환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증상만 비슷할 뿐 예후가 다른지는 아직 아무도 단언할 수는 없다. 최근에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연구에 천문학적인

예상을 배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깊어질 것이라 기대된다. 일견 기쁜 일이지만, 대체 무서운 질환이 인간의 신경계에 어떤 흔적을 남긴다는 건지, 기뻐할 수만은 없는 아이러니다.

지금으로서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코로나19가 많은 환자들에게 장기적인 후유증을 남긴다는 것이다. 끊임 없는 방역, 그리고 백신 보급으로 코로나19의 유행이 끝날지는 몰라도 이미 코로나19에 걸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 한 자료들은 오랫동안 코로나19와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대유행 기간 내내 감염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데 성공한 한국에서는 감염자 수가 워낙 적어서 그런지 후유증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은 것 같다.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적은 수의 환자들이지만 후유증을 드러내고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신경을 써야 하겠다.

열린마당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입니다



김 미 숙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고용센터)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실직해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사용자에게서 고용보험료를 납부받아 지급하는 것이다.

2021년 월 임금 200만원 기준으로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월 1만 6000원, 1년 19만2000원이다. 반면 실업급여는 120일에서 270일간 받을 수 있고, 120일 최저일액 6만1200원을 적용하면 721만4400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도 제주도는 267명이 2억2600만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됐다. 부정수급의 유형으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이직 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취업상태임에도 실업했다고 신고하는 경우 등이 있다.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는 반환될 뿐 아니라 법이 강화돼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된다. 약 700여만원을 받았다면 지원받은 실업급여에 3500여만원을 추가해 최대 4200만원을 반환해야 되는 것이다. 또한, 이직확인 허위신고 등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 처벌된다.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외에도 국제정·4대보험·출입국 관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부정수급 적발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짧은 아르바이트나 일용을 한 경우라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신청할 때 신고해야 한다.

일 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는 최소한의 생계 보장으로 새 일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사회안정망이다.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수급자가 늘 경우 고용보험 재정 악화로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축소되고, 부득이한 보험료 인상으로 수급자 부담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다. 건전한 실업급여 지원이 수급자들의 고용안정에 초석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관광 패턴 변화에 따른 제주관광명소의 미래



김 용 택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한국 관광산업은 과거 메르스·사스 같은 전염병, 중국의 한한령, 일본의 수출규제 등의 외교 갈등으로 인한 위기를 모두 극복해왔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르다. 코로나19의 여파가 현재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특히 관광은 가장 많은 변화를 보았다.

초기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은 여행활동을 '잠시 멈춤' 상태로 만들어 놓았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코로나19의 일상화 및 여행의 갈망 등으로 국내여행의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관광 패턴의 경우 과거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한 예로 과거에는 제주하면 자연을 떠올리며 많은 관광객들이 천지연폭포와 같은 제주

관광명소를 주로 방문하며 여행을 즐겼다면, 현재는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을 선호하고 있어 자연스레 관광명소를 찾는 발걸음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변화는 제주관광명소의 입장에서는 위기가자 기회이다.

현재 많은 관광명소가 과거의 모습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천지연폭포에서는 관광 패턴의 변화에 발맞춰 올해 3월부터 1970~1980년대 '추억의 천지연폭포 신혼여행 사진전시회', 셀프웨딩 포토존 등의 운영을 통해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제주관광명소를 찾는 발걸음은 코로나19 이전과 대비해 줄어들었지만, 관심 또한 줄어든 것은 아니며 아직도 많은 관광객들이 자연을 통한 '힐링'을 갈망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작은 변화의 시도들은 큰 변화를 유도할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시기에 제주관광명소들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발판으로 삼아 한층 발전해 다시금 그 위상을 되찾을 것이다.

한리일보 제주 대표신문.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

시민장 의사. Advertisement for a community clinic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s.

차량 구매 고객님의 한해서 블랙박스 설치해 드립니다! Advertisement for car purchase with Black Box installation.